

오피니언

데스크시각

박치경



지방권력 재편 작업이 끝났다. 전국의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및 시도 교육감·교육의원을 뽑는 6·2 지방선거가 마무리 돼 일부 일꾼들의 얼굴이 바뀌었다. 새로 선출된 사람들은 오는 7월 1일 취임을 앞두고 준비가 한창이다.

애초 여권의 승리가 점쳐졌던 6·2 지방 선거 결과가 사뭇 다르게 나오자 앞으로 펼쳐질 민선 5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지대하다.

선출직, 대접 받는 자리인가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뜨거운 반응과 함께 당선자의 행보도 바쁘다. 새로 선출된 인사들은 취임 후 청사진을 그리느라 하루가 새기만 한다.

이렇듯 분주한 와중에 한쪽에서는 우리 지방자치가 한 발자국 앞서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민선 4기를 거치는 동안 불거졌던 지방자치의 치부를 도려내고, 더욱 성숙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느라 분주하다.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해 우선 고쳐야 할 문제는 아직도 '자치 일꾼' 일부에 남아있는 '권력'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다. 쉽게 이야기해서 지방 일꾼을 가운데 몇몇은 아직도 자신의 지위를 '대접

'뒷돈 안 받겠다'는 공약부터

받는' 자리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지방자치에서 단체장(교육감)은 예산 집행권과 조직 내 인사권을, 지방(교육) 의원은 의결권이라는 막중한 권한을自如하게 된다.

지역에서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자치단체장은 대통령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수의계약은 물론이고, 단체장의 입김에 따라 사업자가 정해지기도 한다.

명)에서만 10명(뇌물수수 5, 선거법위반 4, 업무상 배임 1)이 비리 등으로 중도하차 했다. 최근까지도 광주지역 자치구에서 비리가 터져나오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단체장에게는 예산 규정에 따라 직위에 맞는 급여와 승용차, 비서진의 조력이 제공된다. 여기에 연간 억대의 공식적인 업무추진비도 사용할 수 있다.

이 같은 지원에도 금품비리가 속출하는 것은 결국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본인의

'철학'의 문제다.

취임 일성으로 청렴을 백번이고 다짐하지만 자신이 대접받는 자리에 있다는 무의식에서 깨어나지 못해 결국 상당수가 업자나 부하직원들로부터 돈을 받았다가 불명예 퇴진하는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

결국 '철학'이 문제

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들도 사람인지라 '견물생심'(見物生心)의 유혹에 빠질 수도 있겠지만, 한 번 잘못된 행동은 자자손손 오명을 남기게 된다. 공직자 비리는 본인과 가족, 더 나가 지역과 주민들의 명예까지 실추시키는 '공공의 적'이라는 점에서 지방자치의 격을 뛸어뜨리는 가장 큰 폐해다.

민선 5기 출범을 앞두고 모두 포부가 대단하다. 일자리 창출, 청렴, 복지증진, 지역경쟁력 높이기 등등 헤아리기 어려운 공약들이 난무하고 있다.

그러나 (조금 순진해 보이기는 하지만) 임기종 절대 뒷돈 받지 않겠다는 '자신과의 공약'을 세우고 실천해보는 게 가장 중요할 듯싶다. 이 공약만 제대로 지켜져도 민선 5기의 절반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1부장〉 unipark@kwangju.co.kr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이상욱



아무도 잡을 수 없는 것이 세월이라 고 했던가. 우리 부부도 어느새 회갑이 넘어버렸다. 그 수많은 시간들이 어떻 게 흘러갔는지 오늘은 마침 서른여덟 번째 결혼기념일이다. 세월의 빠름이 한 걸 더 절실히 느껴진다. 그래서인지 뒷인가 허전한 마음을 주스르다가 옛날 연애할 때 찍은 사진과 똑같은 포즈로 기념 촬영을 했다. 우리가 처음 만난 날 전 그때 나는 하얀 모자를 쓴 해군이었고 아내는 우체국 공무원이었다.

자라난 아가씨였던 아내가 세월이 흐른 지금은 치매 환자인 팔십 셋 되신 장모님을 모시며 아들 없는 처녀의 차례, 제사까지 다 맡고 아직도 못 미더운 자식 뱃돌바라지 또 거기에서 국악까지 배우며 가르치기도 하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눈코뜰 새 없이 바쁜 60대 초반 할머니로 변해버렸다.

요즈음엔 딸에게 배운 컴퓨터 게임 한 가지가 더 늘었다. 퇴직 후 두문불출하고 있는 나는 아내의 삶에 대한 열정

결혼기념일 밤의 회상

그 당시는 청춘 남녀가 함께 걷는다는 것이 무척 쑥스럽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면서도 팔짱을 끼고 보란 듯이 신작로를 활보했던 용감한 커플이었다.

얼마 뒤 '남녀유별'이라 걸인이 오면 여자는 절대 안 나간다는, 너무나도 보수적인 마을에 나는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 과감히 쳐들어갔었다. 6·25 때 남편을 떠나보내고 외롭게 시부모님을 모시던 장모님을 뵙았고, 긴 담뱃대를 물고 위엄 있게 바라보시던 처조부님께 공손히 큰절을 드렸었다.

물론 그 분들은 갑자기 들이다친 나를 보시며 정말 아이없어 하셨지만 그 래도 결국 합격점을 주셨기에 결혼할 수 있었다. 26년 동안 직장생활 할 때는 일 년에 두세 번 부부동반해서 애유회를 찾는데 그때마다 아내는 항상 주인 공이었다. 학창 시절 내내 국악 등아리 멤버였기 때문에 설장구를 멋들어지게 잘 쳐서 인기 많았던 것이다. 그 당시 아내가 가야금을 켜면 나는 팔배개를 하고 누워서 흥얼거리며 춘향전의 이 도령 기분을 내기도 했다.

그런데 아버지 안 계시는 할아버지 슬하에서도 밝고 명랑하게 구경 없이 갖길 주차시 안전삼각대 보다 불꽃신호봉 더 안전

기고

김정운



무송원(撫松園)이 광주로 돌아온다. 광주시가 동구 운립동 일대에 전통문화관을 설립하면서 그 부지 안에 무송원을 이전 복원, 국악당으로 쓰기 위해 이 멋스런 한옥을 화순에서 옮겨오기로 한 것이다. 광주의 아픈 근대사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무송원은 지난 1977년 아버린 양고 없는 화순군 동면으로 이전돼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한 채 지금까지만 해도 그곳에 사라져갔다. 경제성과 수익창출에만 가치의 중심에 두는

무송원 광주이전을 환영한다

호남은행 설립을 주도한 현준호씨(1950년 작고)가 조상의 재자 갑주거공간으로 쓰기 위해 1980년부터 짓기 시작해 무려 31년간 현씨와 그 후손들에 의해 이어진 전통 한옥 양식의 건물이다. 현씨는 6·25 한국전쟁 당시 사망해 이 건물의 완공을 보지 못했다. 당시 무송원이 건립된 위치는 동구 학동으로, 넓은 부지와 고耸스러운 분위기로 인해 학생들의 소풍장소로 자주 이용됐었다. 아마 60·70년대 광주시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도심 속에 자리한 이 전통 한옥을 한 번쯤 봤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씨의 후손들이 무송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를 느낀 나머지 부지를 매각하고 건물을 광주은행에 기증하면서 무송원은 갈 곳을 잊고 말았다. 광주은행은 기증받은 이 광주의 전통한옥을 그 모습 그대로 화순연수원으로 옮겨놓았지만, 그 후 무송원의 존재 가치는 더 이상 거론되지 못했다.

광주은행뿐 아니라 시민 모두가 깨닫지 못한 사이 광주의 정체성을 간직한 근대유물은 고사할 위기 속에서 무관심 속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37년이 지난 그때 외국인이나 외지인들이 찾았을 때에는 이 무송원을 소개하며, 광주의 문화와 역사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가져보련다.

무송원의 이전·복원을 통해 광주는 공간구조 측면에서 그리고 도시개발 측면에서 새로운 서막을 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1년 말 우리시가 추진한 무송원 이전 및 전통문화관 전립 사업이 완료되면 복원된 무송원에 앉아 남도민묘를 들으며, 무등산 막걸리를 한 사람 들이킬 수 있을 때가 올 것이다.

무송원은 고사할 위기 속에서 자리를 지켜온 한옥이다. 그때 외국인이나 외지인들이 찾았을 때에는 이 무송원을 소개하며, 광주의 문화와 역사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가져보련다.

〈광주시 종합건설 본부장〉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증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펜상'을 수여 합니다. 은펜칼럼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가입 까다로운 사람보험 넘쳐나는 애견보험

며칠 전 우연히 애견 잠지를 보던 중 애완견 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보험료가 최저 월 약 13,000원까지 있고 최고 보상수준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병원에 통원 또는 입원시 모든 병원비용의 80%까지 보상하며 한 가지 질병당 5백만원까지, 연간 최고 500만원까지 보장해준다는 것이다.

나는 그 광고를 보다니 너무 화가 났다. 주위 친구 중에 가끔 보험을 들려 치면 장애나 이런 저런 이유로 가입이 안 된다는 말을 듣는다고 하소연한다. 가입이 되더라도 때

지는 게 많고 요구 조건에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 불가를 받아 보험 가입을 못 한다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장애가 생겼는데 그런 이유만으로 각종 규제를 들먹이며 보험 가입을 막으면서 어떻게 애완견 보험은 그토록 많은지.

장애인을 중 아미도 애완견 보험이 있다 는 걸 아는 분들은 모두다 필자 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별다른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게 답답할 뿐이다.

▲문서회·광주시 광산구 송치동

시설

나로호 성공발사로 우주강국 꿈 이루자

한국의 첫 우주발사체인 나로호(KSLV-I)가 마침내 오늘 오후 5시를 전후해 발사된다. 기계 이상이 없고 날씨가 양호하다면 나로호는 힘차게 우주로 날아오르게 된다. 우주센터가 위치해 있는 고흥에서는 성공 발사를 기원하는 다양한 축하행사도 예정돼 있다.

지난 8월 1일 첫 실패의 아픔을 딛고 나로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면 우리나라라는 자기 땅에서 자력으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우주를 봅'에 세계 10번째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대한민국이 10대 우주강국으로 발돋움한다는 의미다.

지난 10개월간 항공우주연구원 기술진은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 무엇보다 로켓 상단과 페어링 분리에 가장 많은 공을 들였다. 페어링 전체 시스템 시험을 24회나 실시했고 400회가 넘는 부품 실험과 5000여건의 문서 검토도 마쳤다. 페어링이 잘 분리될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하고 분리 회약을 터뜨리는 신호 역시 전기적 부분이 보완됐다. 우주

항공 전문가들이 2차 발사의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이런 연구원들의 수고와 그 결과를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열원대로 나로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기 위해서는 마지막 까지 완벽한 마무리 점검이 요구된다. 인공위성 발사는 작은 결함 하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철두철미한 점검이 중요하다.

나로호 프로젝트 성공의 경제적 가치는 2조3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나로호에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 이번 발사의 성공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에게 우주개발의 꿈과 희망을 주기 때문이다. 선진국 대열에 당당히 오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게 된다. 그 만큼 우리 미래의 꿈과 희망이 달려 있는 중대한 프로젝트다. 우주 개발은 항상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하더라도 중단 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광주 야구장 건립 여론 수렴하되 속도 내야

광주 새 야구장이 현 무등경기장 축구장에 개방형으로 건립될 공산이 커졌다. 강운태 광주시장 당선자는 최근 무등경기장 축구장에 야구장을 신축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송광운 북구청장도 "광주의 새 야구장은 무등경기장에 개방형으로 짓게 될 것"이라며 "강운태 광주시장 당선자와도 잠정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시장 당선자의 말언을 관련 지역 구청장이 뒷받침했다는 점에서 새 야구장은 '무등경기장 축구장(장소), 개방형(방식)'에 무게가 실리게 됐다.

새 구장 건립은 그동안 수 없는 논란 만 거듭하다 결국은 흐지부지 되는 등 시간만 낭비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지역 연고팀인 기아타이거즈가 한국시리즈를 10번째 제패하면서 다시 본격화됐다. 시민들의 요구도 거셌다. 급기야 광주시는 지난 2월 국내 굴지의 건설사와 농구장 건립을 위한 MOU까지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미 저도 건설

사의 종도 포기로 백지화 됐다. 오히려 시가 의견 수렴 없이 무리하게 추진해 지역사회 분열만 불러오고 말았다.

새 야구장 건립은 '농구장 헤드닝'을 재연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충분한 여론 수렴과 정을 거쳐야 한다. 시 재정상태, 수익성 확보, 도시 균형발전과의 연계성, 지역 경제의 시너지 효과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새 야구장 건립은 여론 수렴과 정을 거치되 속도를 내야 한다. 광주시는 농구장이 무산된 후 야구장건립 시 민주진위위원회를 만들고 올 하반기부터 착공에 들어간다는 일정까지 발표했었다. 그 이후 추진위원회가 무슨 일을 했는지조차 알 길이 없다. 이런 식으로 야구장 건립은 하대명년(待明年)이다.

새 야구장 신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민적 현안이자 과제로 어디에, 어떻게 건립할지 논의하되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신동국여지승람과 영광읍지 등 옛 문현에는 참조기(석수어(石首魚))로 기록돼 있다. 머리 부분이 단단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조기는 국가 경제에도 한 몫을 했다. 세종실록지리지에 '석수어는 파시령(법성포)에서 난다. 불과 여름이 교차하는 때에 여러 곳의 어선이 모여 그물로 잡는다. 관에서는 세금을 거두어 국

용으로 쓴다'고 적혀 있다.

조기가 조선시

대 중요한 세원 중의

하나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법성포의 조기 어장은

칠산 바다다. 한때

칠산 바다는 '물반 조

기반'으로 뛰어 위로 뛰어

어오르는 조기만 잡아

도 만선을 이뤘다고

한다. 전남민요 뱃노래에는 '돈 살리 가자 돈 살리 가자 칠산 바다에 돈 살리 가자'며 조기를 돈으로 표현했다. 매년 조기 파시 때면 전국의 이름난 술집 여인네들이 영광으로 모이고 강아지도 돈을 물고 다녔다는 말처럼 법성포는 풍요를 누렸다.

그러나 요즘 칠산 바다에서는 조기가

거의 잡히지 않는다. 시중 참조기는 대부분 주도로 바다에서 잡힌 것이다. 그럼에도 영광굴비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법성포의 기온과 습도, 바다 바람 등이 굴비 가공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다.